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 2017년 1월 10일

오바마 대통령: 안녕하세요, 시카고 여러분! [박수] 집에 오니 좋네요!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모두 앉으세요. [박수] 여긴 생방송 중입니다. 움직여야겠어요. [박수] 아무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가 레임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웃음] 모두 앉으세요. [박수]

미국인 여러분 - [박수] - 미셸과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모든 축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제가 감사를 표할 차례입니다. [박수] 우리가 눈을 마주쳤든 전혀 동의하지 않았든, 거실과 학교에서, 농장에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먼 군 초소에서, 미국 국민 여러분과 나눈 대화는 저를 정직하게 하고, 영감을 주고, 계속 나아가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여러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더 나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

저는 20대 초반에 시카고에 처음 왔어요. 당시 저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제철소 그늘에서 교회 단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신앙의 힘과 고난과 상실감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존엄성을 목격했습니다.

관객: 4년 더! 4년 더! 4년 더! 그럴 수 없습니다.

관객: 4년 더! 4년 더! 4년 더!

오바마 대통령: 저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힘을 합쳐 변화를 요구할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8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에 대한 대담한 실험인 우리 미국 사상의 심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하고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신념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명하지만 결코 저절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통해 더 완벽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립자들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꿈과 노력, 상상력을 통해 개인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공동의 선, 더 큰 선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240년 동안 시민권을 향한 미국의 부름은 새로운 세대마다 일과 목적을 부여해 왔습니다. 애국자들이 폭정 대신 공화정을 선택하고, 개척자들이 서부로 향하고, 노예가 자유를 되찾고

임시 철도를 타고 자유를 향한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와 난민들이 바다와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온 이유입니다. [박수]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오마하 해변과 이오지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셀마에서 스톤월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수] [박수]

미국이 예외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변화하고 뒤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발전은 고르지 않았습니니다. 민주주의의 작업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니다. 때로는 피비린내가 나기도 했습니다. 두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한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긴 역사는 일부가 아닌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건국 신조를 끊임없이 넓혀온 전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박수] [박수]

8년 전 제가 미국이 대침체를 극복하고 자동차 산업을 재부흥시키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일자리 창출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면 - [박수] - 쿠바 국민과 새로운 장을 열고,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면 - [박수] - 쿠바 국민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면 - [박수] -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면, 9/11 테러의 주범을 제거하고 - [박수] - 결혼 평등을 쟁취하고 2천만 명의 국민에게 의료 보험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더라면 - [박수] - 이 모든 것을 말했더라면 우리의 목표가 너무 높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 바로 여러분이 해낸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희망에 응답했고, 여러분 덕분에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은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수]

10일 후, 전 세계가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청중: Nooo -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유 선거로 선출된 한 대통령으로부터 다음 대통령으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박수]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시 대통령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행정부가 가능한 한 가장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 우리 정부가 우리가 여전히 직면한 많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 추진력, 다양성과 개방성, 위험과 재창조를 위한 무한한 역량은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은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품격을 더 잘 반영할 때만 가능합니다. [박수] 소속 정당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동의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탠다면 말입니다.

오늘 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민주주의는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립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가 기본적인 연대감,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함께한다는 생각, 즉 하나로 흥하거나 망한다는 생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 [박수]

우리 역사에는 이러한 연대를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초가 바로 그러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축소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테러리즘의 유령이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가 있다는 인식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날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소득, 주택 가치, 은퇴 계좌가 모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하는 와중에도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무보험 비율은 그 어느 때보다 낮습니다. [박수] 의료 비용은 5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진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개선한 의료 시스템보다 더 나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박수]

결국 그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얻거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그러나 우리가 이룬 모든 실질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중산층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다리를 희생시키면서 소수가 번영하면 우리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거나 빠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박수] 이것이 경제적 논거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이상도 부식시킵니다. 상위 1%가 더 많은 부와 소득을 축적하는 동안 도심과 시골 카운티의 너무 많은 가정은 해고된 공장 노동자,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웨이트리스나 의료 종사자 등 뒤쳐져 있으며, 게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고정되어 있고 정부가 강자의 이익에만 봉사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 냉소와 양극화를 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역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제적 이탈의 물결은 해외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쓸모없게 만드는 끊임없는 자동화의 속도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박수] -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임금을 위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고, 세금을 더 개혁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는 기업과 개인이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박수]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자체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만과 분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번째 위협은 미국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제가 당선된 후 인종주의 이후의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고 종종 분열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이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인종 관계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박수] 통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미국 젊은이들의 태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박수] 모든 경제 문제가 열심히 일하는 백인 중산층과 불우한 소수자 간의 투쟁으로 치부된다면, 부유층이 사적 영역으로 더 물러나는 동안 모든 피부색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박수] 이민자 자녀가 우리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자 자녀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국 노동력에서 갈색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전망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경제가 제로섬 게임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모든 인종, 모든 연령대, 남성과 여성의 소득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종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면 고용, 주택, 교육, 형사 사법 제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박수]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과 우리의 최고 이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수 [박수]

하지만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태도는 종종 여러 세대에 걸쳐 변화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각자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미국 소설 속 위대한 인물 애티커스 핀치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APPLAUSE].

흑인 및 기타 소수자 그룹의 경우, 이는 난민, 이민자, 농촌 빈민, 트랜스젠더 미국인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해 보이지만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세계가 뒤집힌 중년의 백인 남성 등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와 정의를 위한 우리 자신의 실제 투쟁을 연결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박수 [박수]

백인 미국인들에게 이는 노예제도와 짐 크로우의 영향이 60년대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박수] - 소수 집단이 불만을 표출할 때 단순히 역 인종차별을 하거나 정치적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을 받을 때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자들이 약속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미국 토박이들에게 오늘날 이민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등 미국의 근본적인 특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말이 거의 한 마디씩 나왔던 것을 상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새로운 이민자들의 존재로 인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의 신념을 받아들였고 미국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수] [박수]

따라서 우리가 어느 지위에 있든 우리 모두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아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호기심과 희망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박수] [박수]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나 대학 캠퍼스, 예배당, 특히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나와 닮은 외모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기만의 거품 속으로 후퇴하는 것이 더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적나라한 당파주의의 부상, 경제적 및 지역적 계층화의 심화, 미디어가 모든 취향에 맞는 채널로 분열되는 등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분류를 자연스럽고 심지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거품에 빠져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 번째 위협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아이디어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건전한 토론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지만 공통의 사실 기준이 없고, 새로운 정보를 기꺼이 인정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지적을 할 수 있으며 과학과 이성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수] 우리는 계속 서로를 지나쳐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공통점과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수] [박수]

바로 이런 점이 정치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에 돈을 쓰자고 제안할 때는 적자에 대해 분노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수] 어떻게 우리 당의 윤리적 결함은 변명하면서 상대 당이 같은 일을 하면 펄쩍 뛰는 걸까요? 사실을 선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 패배적인 행위입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은 반드시 당신을 따라잡는 법이 있으니까요. 박수] [박수]

기후 변화에 대한 도전에 동참하세요. 불과 8년 만에 우리는 해외 석유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였고, 재생 에너지를 두 배로 늘렸으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약속을 담은 협약을 전 세계로 이끌어냈습니다. [박수] 하지만 더 과감한 행동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후 변화의 존재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환경 재해, 더 많은 경제적 혼란, 피난처를 찾는 기후 난민의 물결 등 그 영향에 대처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쟁할 수 있고 또 논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본질적인 정신, 즉 창립자들을 이끈 혁신과 실용적인 문제 해결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박수] [박수]

키티 호크와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비행기를 띄우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은 정신, 계몽주의에서 탄생한 바로 그 정신이 미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이성과 기업에 대한 믿음, 힘보다 권리가 우선이라는 정신이야말로 대공황기에 파시즘과 폭정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게 해 주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군사력이나 국적에 기반하지 않고 법치, 인권, 종교와 언론, 집회의 자유, 독립 언론 등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박수] [박수]

이러한 질서는 이제 이슬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폭력적인 광신도들과 최근에는 자유 시장과 열린 민주주의, 시민 사회 자체를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외국 수도의 독재자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협은 자동차 폭탄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다르게 보이거나 말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치에 대한 경멸, 반대 의견과 자유로운 사고에 대한 편협함, 칼이나 총, 폭탄, 선전 기계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궁극적인 중재자라는 믿음 등을 상징합니다.

제복을 입은 우리 군인들과 여성들의 특별한 용기와 정보 요원,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우리 군대를 지원하는 외교관들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외국 테러 조직이 우리 조국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박수]. [보스턴과 올랜도, 샌버나디노와 포트 후드는 급진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켜 주지만, 우리 법 집행 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라덴을 포함해 수만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습니다. [박수]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연합군은 ISIL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영토의 절반 가량을 빼앗았습니다. ISIL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을 위협하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군에 복무 중이거나 복무했던 모든 분들께, 저는 여러분의 총사령관이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박수]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면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외부의 침략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만드는 가치가 약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박수] [박수]

그렇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저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보다 확고한 법적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종식하고 관타나모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법을 개혁했습니다.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만큼이나 애국심이 강한 무슬림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박수] [박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여성 인권, 성소수자 인권의 확대를 위한 거대한 글로벌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그러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무리 편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미국을 수호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극단주의와 편협함, 종파주의와 우월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권위주의와 민족주의적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법치 존중의 범위가 축소되면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우리 자신의 자유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마시다. [박수] ISIL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의 헌법과 원칙을 배반하지 않는 한 그들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라이벌들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고 작은 이웃을 괴롭히는 또 다른 대국이 되지 않는 한 전 세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 [박수].

마지막으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수] 정당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민주적 제도를 재건하는 일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박수] 미국의 투표율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우리는 투표를 더 어렵지 않게, 아니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 [박수]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우리는 정치에서 돈의 부패한 영향력을 줄이고 공직의 투명성과 윤리 원칙을 고집해야 합니다. [박수]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여 정치인들이 경직된 극단이 아닌 상식에 부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박수] [박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참여, 즉 권력의 추가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든 우리 각자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부여합니다. [박수] 우리 국민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맺는 동맹으로 말입니다. [박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옹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법치를 존중하고 집행할지 여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우리의 긴 여정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은 고별 연설에서 자치는 우리의 안전, 번영, 자유의 토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곳에서 많은 고통이...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심에 찬 불안"으로 이 진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신성한 유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대화가 너무 부패해져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을 때, 너무 거칠어져서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단지 잘못 인도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이러한 유대를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중 일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미국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전체 시스템을 필연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의 역할을 검토하지 않고 앉아서 비난할 때 이러한 유대를 약화시킵니다. 박수 [박수]

우리 각자가 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질투하는 수호자가 되어 이 위대한 국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즐거운 임무를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는 자랑스러운 직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박수] 시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만, 자신의 좁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서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들과 논쟁하는 데 지쳤다면, 실생활에서 그들과 대화해 보세요. [박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신발 끈을 묶고 정리 정돈을 해보세요. [박수] 선출직 공무원에게 실망했다면 클립보드를 들고 서명을 받아 직접 선거에 출마하세요. [박수] 등장하세요. 뛰어들어 보세요. 계속하세요.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면을 가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이 일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활력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박수 [박수]

저도 그랬죠. 지난 8년 동안 저는 젊은 졸업생들과 신임 군 장교들의 희망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함께 슬퍼했고, 찰스턴의 한 교회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비된 남성이 촉각을 되찾도록 돕는 과학자들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포기한 듯 보였던 부상당한 전사들이 다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진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민을 돌보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를 어린 아이들의 행동과 관대함을 통해 상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수 [박수]

몇 년 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평범한 미국인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2004년, 2008년, 2012년에 우리와 함께 하였고 - [박수] - 아직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웃음]

미셸 - [박수] - 사우스사이드의 소녀, 미셸 라본 로빈슨 - [박수] - 지난 25년 동안 당신은 내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박수] 당신은 부탁하지도 않은 역할을 맡아 우아함과 근성, 스타일과 유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 당신은 백악관을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수]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대통령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수] 그래서 대통령님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수] [박수]

말리아와 사샤,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놀라운 젊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고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박수] 여러분은 오랜 세월의 스포트라이트의 짐을 너무나 쉽게 짊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한 모든 일 중에서 네 아빠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박수] [박수]

스크랜턴에서 태어나 델라웨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된 조 바이든에게 - [박수] - 당신은 제가 후보로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고,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박수] 당신이 훌륭한 부통령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대가로 저는 형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질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두 사람의 우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박수]

저의 뛰어난 직원 여러분께: 8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에너지에서 영감을 얻었고, 매일 여러분이 보여준 마음과 인격, 이상주의를 되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신만의 놀라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에도 여러분은 결코 위싱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냉소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낸 모든 좋은 일보다 제가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를 모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박수]

그리고 낯선 마을로 이사 온 모든 주치자, 그들을 환영해준 모든 친절한 가족, 문을 두드린 모든 자원봉사자, 처음으로 투표를 한 모든 젊은이, 변화의 노력으로 살아 숨 쉬는 모든 미국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은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최고의 지지자이자 조직자이며,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박수] 여러분이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박수] 그러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이 무대를 떠날 때보다 더 낙관적으로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활동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도록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 [박수] - [박수].

이타적이고 이타적이며 창의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이 세대는 미국 전역의 곳곳에서 여러분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미국을 믿습니다. [박수] 여러분은 끊임없는 변화가 미국의 특징이며, 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위한 이 힘든 노력을 기꺼이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우리 모두를 능가할 것이며, 그 결과 미래는 좋은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박수] [박수]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박수]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남은 모든 날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젊든 마음이 젊든, 8년 전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건국 문서에 기록된 믿음,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속삭였던 그 생각, 이민자와 귀농자, 정의를 위해 행진했던 사람들이 노래했던 그 정신, 외국 전장에서 달 표면까지 국기를 심었던 사람들이 재확인한 그 신조, 아직 기록되지 않은 모든 미국인의 핵심에 있는 그 신조를 굳게 붙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수] [박수]

네,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박수] [박수]